

글로벌 헬스케어 R&D BRIEF

(서울대학교병원 보스턴오피스 / 26.08.21.)

1. 트럼프 대통령, 아동백신 행정명령 – MMR 백신 3회 분리접종

□ 배경 및 주요내용



- 26.8.10. 트럼프 대통령, HHS장관 배석하에 아동백신 접종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MMR(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을 3개의 개별 단일백신으로 분리 접종하도록 권고

* "국내에서 이용 가능해지는 대로" 분리백신을 사용토록 함.

→ "골드스탠다드" 핵심백신 11종 재분류

홍역·볼거리·풍진·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Hib·

폐렴구균·HPV·수두만 전 아동 필수권고 대상으로 유지

* RSV 단클론항체, A형간염, B형간염, 수막구균B,

수막구균ACWY, Dengue 백신은 "고위험군만" 권고로 하향

- * A형간염, B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은 "공동의사결정"(의사-보호자 상의 후 결정) 범주로 재분류



Doctors push back on Trump executive order to change childhood vaccine schedule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calling for revamped childhood vaccine recommendations that promote his long-held but discredited theory that childhood shots should be spaced out.

• 우려사항 : 전문가 & 언론 지적사항

쟁점	내용
과학적 근거	- 행정명령 발표 시 새로운 과학적 증거 제시 없음. - CDC 2024년 자료(서명 당일까지 홈페이지 게재)도 "혼합백신을 분리할 이익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없음"라고 명시
자폐 연관성 시사	- 트럼프는 백신접종 시기·횟수와 자폐 증가율의 연관성을 반복 시사
분리백신 부재	- 3개 단일 백신(홍역/볼거리/풍진 각각)이 현재 미국에서 허가된 제품이 전혀 없음. - 제조사의 신규 개발·FDA 승인까지 상당 기간 소요 예상
접종횟수 증가	- 캐시디 상원 보건위원장(공화당 / MD)

쟁 점	내 용
	"백신을 쪼개면 같은 방어력을 얻기 위해 아이들이 접종이 필요하여, 접종 기피만 늘리고 아이들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
접종지연 및 누락위험	- 진료방문 횟수 증가로 예약 누락·접종 지연 가능성, 보험 적용 여부도 불투명

□ 시사점

- 국립 보건당국(CDC)의 기존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행정명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발표된 이례적 사례로서, 향후 소송 등 가능성 있음.
(즉,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
* 분리백신이 실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징적·정치적 선언에 가깝고 실질적 이행까지는 제약사의 신제품 개발·FDA 승인이라는 긴 과정이 필요
- 홍역 확진 건수가 이미 작년 총합을 넘어선 상황에서 접종 장벽을 높이는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우려가 큼.

□ 주요출처

Trump signs order seeking to upend childhood vaccine schedule (26.08.11. / BioPharma Dive / By Deliah Alvarado)
https://www.biopharmadive.com/news/trump-executive-order-childhood-vaccine-schedule-autism/827510/
Trump signs executive order to break up measles, mumps, rubella vaccine (26.08.10. / CIDRAP / By Sarah Boden, Chris Dall)
https://www.cidrap.umn.edu/childhood-vaccines/trump-signs-executive-order-break-measles-mumps-rubella-vaccine
Doctors push back on Trump executive order to change childhood vaccine schedule (26.8.11. / ABC News / ByMichelle Stoddart, Emily Chang)
https://abcnews.com/Politics/trump-executive-order-childhood-vaccine-schedule/story?id=135524851

2. 차기 FDA국장, 헤이디 오버튼(Heidi Overton) 지명

□ 배경 및 주요내용



— Dr. Heidi Overton appeared alongside President Donald Trump on Aug. 10 as he announced an executive order on childhood vaccines. Bonnie Cash / Bloomberg via Getty Images

- 전임 국장 Marty Makary가 26.5월 사임한 이후 FDA국장 공석 (전자담배 규제, 희귀질환 신약심사, 낙태약 관련 갈등 속에 사임)
- 26.8.19.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국장 **헤이디 오버튼(MD, PhD)**을 차기 **FDA국장으로 지명** 발표.
 - 뉴멕시코대 의과대학 출신, 존스홉킨스대 임상연구 박사
 - 다만, 규제기관 경력은 전무함.
 - 트럼프 2기 보건정책 다수에 관여한 바 있음.
 - ex. 아동백신 개편 행정명령(MMR 백신 3회 분리접종) 참석 등

□ 시사점

-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온 인준으로, 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규제기관 관리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지명된 것은 이례적으로서, FDA 조직 안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업계 우려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출처

Who's Heidi? Trump's new FDA pick has been critical of vaccine requirements, abortion pills
(26.8.19. / Endpoints News / By Max Bayer)

<https://endpoints.news/fda-pick-heidi-overton-has-been-critical-of-vaccine-requirements-abortion-pills/>

Trump nominates Heidi Overton to lead the FDA
(26.8.19. / NBC News / By Monica Alba, Berkeley Lovelace Jr. and Rebecca Shabad)

<https://www.nbcnews.com/politics/trump-administration/trump-heidi-overton-fda-commissioner-rcna593309>

□ 배경 및 주요내용

Original Investigation | Public Health

Fecal Occult Blood Screening Outcomes Adjusted for Contamination Bias and Nonadherence

Johannes Blom, MD, PhD^{1,2}; Lennarth Nyström, PhD³; Håkan Jonsson, PhD³

» Author Affiliations | Article Information

CiteThis Permissions Metrics Comments

JAMA Netw Open

Published Online: August 20, 2026

2026;9;(8):e2629856.

doi:10.1001/jamanetworkopen.2026.29856

- 26.08.20.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우메오대 공동연구팀이 Stockholm - Gotland지역의 대장암 국가선별검사 프로그램(2008년 시작)을 최장 14년간 추적한 결과를 JAMA Network에 발표함.

- * 연구대상: 총 376,511명, 추적기간 중 대장암 사망 1,668건 발생
- * 스웨덴은 전국적으로 60~74세 대상 2년마다 재택 대변잠혈검사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이를 “스웨덴 국가검진 프로그램”에 초청했다고 표현)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량의 혈액을 검사, 양성 시 대장내시경 등 추가검사로 연계 1)

* 핵심결과

1) 재택 대변잠혈검사(FIT/FOBT)는 대변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검출하는 검사로써, 대장암(또는 용종)이 있으면 미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혈액 유무로 1차 스크리닝을 하고 검사결과가 양이면 대장내시경 진행하여 실제 원인 확인

구 분	사망위험 감소폭
검사 초청만 받은 경우 (즉, 키트를 발송받음)	26% 감소
실제 검사에 응한 경우	43% 감소

□ 시사점

- 검진 "초청"과 "실제 참여" 간 효과 차이(26% vs 43%)가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검진 프로그램 설계에서 단순 초청 확대보다 실제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전략(리마인더, 접근성 개선 등)이 훨씬 중요하다는 근거가 됨.
- 대장암은 조기발견 시 예후가 양호한 대표적 암종으로, 국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대변잠혈검사 기반)의 참여율 제고 정책에도 참고할 만한 대규모 실증자료가 될 수 있음.

□ 주요출처

Fecal Occult Blood Screening Outcomes Adjusted for Contamination Bias and Nonadherence
(JAMA NETWORK / By Johannes Blom, Lennarth Nyström, Håkan Jonsson)

<https://doi.org/10.1001/jamanetworkopen.2026.29856>

A Simple at-Home Test Could Cut Colorectal Cancer Death Risk by 43%
(26.8.21. / ScienceDaily / By Karolinska Institutet)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26/08/260820202833.htm>

4. 비만호르몬 GDF15, 간 염증·섬유화 억제하는 새 경로 발견

□ 배경 및 주요내용



Building on their 2023 discovery that the hormone GDF15 helps maintain calorie burning during weight loss, McMaster researchers Dongdong Wang, left, and Gregory Steinberg have now uncovered a previously unknown brain-to-liver pathway through which the hormone helps protect against liver inflammation. (Mike Ayers, Faculty of Health Sciences)

- 26.08.10. 캐나다 맥마스터대 Gregory Steinberg, Dongdong Wang 교수 연구팀, Cell Metabolism 발표내용
 - **GDF15는 식욕억제·체중감량 관련 호르몬**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체중감량과 무관한 **별도의 간 보호 기전을 새로 규명**
 - 대상질환 : MASH(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 ²⁾ 으로서, 방치 시 간경변·간암·간부전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근 **GLP-1 계열 체중감량제로 치료성적이 개선되었으나, 체중이 줄어도 간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음.**

2)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 인체 MASH를 정밀 모사한 마우스 모델에 유전학·약리학·유전체학·공간전사체학기법을 복합 적용함.

* 핵심발견 :

→ **GDF15가 뇌→신경계를 거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당질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유도하는 새로운 뇌-간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함을 발견함.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대사·면역·스트레스반응에 관여하는 스테로이드호르몬으로, 간 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함.

→ 상기 보호효과가 **식이섭취량·체중·간 내 지방량의 변화와 무관하게 발생함. 즉 체중감량 없이도 GDF15가 직접 간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함. (기존통념은 'GDF15=체중감량 효과'가 간접적으로 간 보호)

→ 추가적으로 **간섬유화(흉터조직 축적) 진행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

□ 시사점

- 기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체중은 줄여도 간 염증이 남는 환자군에서, **GDF15 기반 병용요법이 보완적 치료옵션이 될 잠재력**을 제시함.
- 다만 아직 마우스 모델 단계로, 인체 임상 적용까지는 상당한 추가 검증(용량·안전성·인체 내 동일 경로 확인 등)이 필요한 초기 연구 단계임.

□ 주요출처

McMaster researchers discover brain-to-liver pathway that protects against liver inflammation
(26.08.11. / McMaster University News / By Jennifer Stranges)

<https://news.mcmaster.ca/mcmaster-researchers-discover-brain-to-liver-pathway-that-protects-against-liver-inflammation/>

This weight-loss hormone may protect the liver even without weight loss
(26.08.22. / ScienceDaily)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26/08/260820202854.htm>

5. BIDMC, “미국 심장건강 전반 악화 - 유독 미국적인 문제”

□ 배경 및 주요내용

JACC Journals > JACC > Archives > Vol. 87 No. 9

 OPEN ACCESS | JACC Stats | 12 January 2026

     

Cardiovascular Statistics in the United States, 2026: JACC Stats

Authors: Rishi K. Wadhera, Sanket S. Dhruva, Behnood Bikdeli, Marc P. Bonaca, Michelle M. Kittleson, Dennis T. Ko, Yuan Lu, ... [SHOW ALL ...](#), and Lesley H. Curtis [AUTHORS INFO & AFFILIATIONS](#)

Publication: JACC • Volume 87, Number 9

-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BIDMC), 심장내과 전문의 Rishi Wadhera 교수 주도의

『JACC(미 심장학회지) Cardiovascular Statistics 2026 첫 종합보고서』발간

- * 심혈관질환 5대 위험인자(고혈압·당뇨·비만·LDL콜레스테롤·흡연)와 5대 주요질환(관상동맥질환·급성심근경색·심부전·말초동맥질환·뇌졸중)을 국가대표 조사·등록자료·행정청구자료 기반으로 종합분석

- 핵심수치

지 표	내 용
고혈압 유병률	성인 2명 중 1명 (2009~2023년 사이 큰 변화 없음)
고혈압 치료율	3명 중 2명만 치료 받음 (2009~2010년 이후 개선 없음)
20~44세 당뇨병	2009년 3% → 2020년 4.1%
20~44세 비만	2009년 32.7% → 2020년 40.9%
20~44세 고혈압	2009년 9.3% → 2020년 11.5%

지 표	내 용
25~64세 심근경색 발생률 (10만명당)	2008년 155건 → 2019년 161건
25~64세 심부전 발생률 (10만명당)	2008년 165.3건 → 2019년 225.3건
25~64세 허혈성뇌졸중 (10만명당)	2008년 76.3건 → 2019년 108.1건

→ 특히 18~54세 중증심근경색으로 병원내 사망률이 급증, 특히 여성의 사망률 증가폭이 큼.

→ Wadhera교수, "**치료제·중재술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했음에도 미국의 심혈관건강 지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는 '유독 미국적 인(uniquely American)' 문제다. 다른 고소득국가들도 비만·당뇨 증가를 겪고 있지만, 미국은 그 위험이 실제 심혈관 결과 악화로 이어지는 정도, 그리고 소득·인종·지역별 격차의 폭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The Harvard Gazette

[Findings](#) | [Campus & Community](#) | [Health](#) | [Menu](#) | [Search](#)



Rishi Wadhera.
File photo by Stephanie Mitchell/Harvard Staff Photographer

Treatments for cardiovascular conditions have never been better. Knowledge about how to improve heart health has steadily improved. Yet, in the U.S., progress in cardiovascular health has largely stalled out and in some ways worsened — even as increasingly effective treatments and interventions come to market.

The problem, said Rishi Wadhera, lead author of the [Inaugural 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JACC\) Cardiovascular Statistics 2026 report](#), is "uniquely American."

□ 시사점

- 치료기술의 발전과 실제 인구집단 건강지표 개선이 괴리되는 현상은, **예방·1차의료 접근성·건강보험 체계 등 구조적 요인이 기술 발전을 상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점으로 해석됨.
- 특히 18~54세 젊은 연령층의 중증심근경색 사망률 증가는 향후 수십 년간의 만성질환·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경보로서 의미가 큼.

□ 주요출처

Cardiovascular Statistics in the United States, 2026: JACC Stats (26.01.12. / JACC / By Rishi K. Wadhera, Sanket S. Dhruva, Behnood Bikdeli, Marc P. Bonaca, Michelle M. Kittleson, Dennis T. Ko, Yuan Lu, Neha J. Pagidipati, Mitsuaki Sawano, Erica S. Spatz, Muthiah Vaduganathan, Jason H. Wasfy, Celina M. Yong, Huanhuan Yang, ZhaoNian Zheng, Harlan M. Krumholz, and Lesley H. Curtis)
https://www.jacc.org/doi/10.1016/j.jacc.2025.12.027
American heart health worsening (26.02.26. / The Harvard Gazette / By Jacob Sweet)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026/02/american-heart-health-worsening/